

# 아프간, 불교유적 파괴 또 시작되나

2001년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은 세계 최고의 불상 바미안 대불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무참히 파괴해 세계를 경악시켰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아프간 남서지역 고대불교 유적과 유물들은 이제 탈레반이 아닌 '경제 이익'이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고 인도 언론 뉴스트랙(News Track) 인터넷판은 9월 25일 보도했다.



(좌)아프간 로가르(Logar) 주(州)의 메스 아이나크(Mes Aynak). 5세기경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최고의 불교문화를 꽃피웠던 메스 아이나크유적지(우)유적지에서 발견된 고대불상들



## 中 광물개발공사, 오는 12월 메스 아이나크 구리광산 본격 채굴 국제 여론, 제2 바미안 대불 ... 보존의 길 모색해야

시한은 올 12월 말까지다.

2011년 여름부터 이 과정을 영상이 담고 있는 브렌트 후프만 교수는 9월 22일 미국 언론 CNN에 "아프간의 지정학적 가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중국 기업의 손에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MCC는 나찰 전까지 메스 아이나크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3년이 나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강경 이슬람 국가인 아프간 정부 역시 메스 아이나크를 1조 달러에 이르는 광물 자원 개발의 본보기로 삼고 싶어 한다.

한편 인도 언론 뉴스트랙은 미대사관 소

속 고고학자 라우라 테데스코 박사의 말을 인용, "중국국영 광산업체가 채굴을 시작하면, 메스 아이나크 지역의 불교유적지는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고 전했다.

"메스 아이나크는 2600여년 된 불교유적"이라고 강조한 테데스코 박사는 "특히 5세기경 꽃피운 불교문화는 200개 이상의 거대 불상과 사원들을 남겨놓았다"며 "실크로드 시대에 구리를 한반도에까지 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있고, 청동기 시대 유물도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구리 광산이 있는 부근은 아프간 국립고

고학연구소와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2009년부터 발굴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지역은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6세기 사이에도 채굴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 벽화와 수백 점의 조각상이 발견됐다.

이중에는 높이가 5m에 이르는 와불도 포함돼 있고, 높이 9미터 이상인 사리탑과 검은색과 붉은색 물감으로 그린 프레스코 벽화, 보석으로 장식된 석고상 등도 있다.

영국 온라인 매체인 매일온라인은 "광산 채굴이 시작되면 유적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최대한 유물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는 한편 "메스 아이나크를 위협하는 것은 채굴만이 아니라, 가난한 지역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벌이고 있는 밀반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종욱 편집위원

## 슈라마나 전통연구 권위자

### 세계의 불교학자(35)

파드마나브호 자이니  
美 UC 버클리대 교수



파드마나브호 자이니(Padmanabh S. Jaini · 89) 美 UC 버클리대 교수는 불교와 자이나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 슈라마나[沙門] 전통연구의 세계적 권위자다.

1923년 인도 카르나타카 주에서 출생한 자이니 교수는 영국 런던대를 졸업하고 1959년 (아비달마 디빠) 사본의 교정과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바라나시 힌두 대학과 영국 런던 대학에서 강사로 재직했으며 미국 미시간 대학을 거쳐 1972년부터 1994년까지 UC 버클리대 불교학 담당교수로 재직했다.

자이니 교수는 반세기에 걸친 학문적 여정을 통해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사본의 연구로 세계불교학계에 큰 공헌을 남겼다.

특히 자이니 교수가 1959년 펴낸 (아비달마디빠(Abhidharmadipa)) 교정본 출판은 프란 교수의 (아비달마구사론(1967))출판과 함께 이 분야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당시 서구 불교학계는 19세기 이후 실비안 레비 등을 중심으로 네팔 사본에 근간한 산스크리트 교정본 출판을 지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근대 불교 사본연구에 큰 획을 그은 라홀라 상크르티야야나가 티베트 사무사에서 갖고 온 불교 논리학 관련 마이크로필름으로 인해 산스크리트어 사본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유능한 편집자를 물색중이던 자야스왈 연구소는 당시 바라나시 힌두 대학의 팔리어 강사였던 20대의 자이니에게 (아비달마디빠)의 편집과 교정을 위탁했다.

교정을 시작한 자이니 교수는 당시 사본 수집 차 네팔로 가던 런던대 존 브라프 교수의 눈에 들었고, 영국 유학을 권유 받았다. 런던으로 자리를 옮긴 자이니는 신속하게 (아비달마디빠)의 교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1959년에 런던대 박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다.

1930년대 아비달마 관련 학계에는 이렇다할 새 교정본의 출판이 없었다. 그러던 차 1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서론과 팔리어 아비달마 및 프란 교수의 미발표 구사론 교정 원고까지 참조하며 각주에 공을 들인 (아비달마디빠(Abhidharmadipa)) 출판은 세계 학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사본 발굴과 출판을 통해 근대불교학을 개척하던 자이니 교수는 1980년대 초 자타카 문학의 동남아시아적 전개에도 주목했다. 이러한 관심으로 1981년과 1985년 팔리사전회의를 통해 (빠나사 자타카(Pannasa-Jataka)) 교정본과 번역본을 출간했다.

(빠나사 자타카)는 태국 미얀마 캄보디

아 등에서 팔리어로 구전돼 오던 50개의 전생담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팔리어 (자타카)와 달리 불교가 동남아시아로 유입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역불교인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각색된 지역 전생담이라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 자료다.

자이나 교수는 세계 불교학계에서는 보기 드문 인도출신의 불교학자이지만 태생적으로 자이나 교도였다. 그래서 다른 학자들이 가질 수 없었던 독특한 시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

## 자이나교 태생 인도출신 불교학자 산스크리트·팔리어 사본연구 동남아시아 자타카문학도 전개

그는 인도사상자를 비판적 관점이 아닌 모국인으로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불교나 자이나교 등을 사문(沙門) 전통이라는 인도사상의 큰 흐름에서 파악했다.

자이니 교수의 대표적 저서로는 (Abhidharmadipa with Vibhasrabhāvrtti(1959)), (Millinda-tika(1961)), (Saratama(1979)) (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1979)), (Gender and Salvation(1991)) 등이 있으며, 최근 그의 반세기에 가까운 불교, 자이나교 연구를 (Collected Papers on Jaina Studies(2000))와 (Collected Papers on Buddhist Studies(2001))의 논문집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 가운데 (자이나 청정의 길 (The Jaina Path of Purification))은 인도사상사를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자이니 교수의 균형 잡힌 시각이 잘 반영돼 있다. 이 책에서 자이니 교수는 방대한 분량의 원전 연구에 기초해 브라흐마나와 슈라마나 두 전통을 종횡으로 넘나들며 해탈이라는 인도문명 전체의 관심사에 대한 자이나교적 해법을 교리와 역사, 문화적 배경에 이르기까지 특유의 역동적이고 총체적인 필치로 개시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운석에 새겨진 1천년 전 티베트 사천왕상

## 나치 독일 친위대 발견, 현재 독일 컬렉션에 공개

운석에 조각한 사천왕상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나치 독일 친위대(SS) 탐사대는 9월 26일(현지시간) "1938년 티베트에서 손에 넣은 사천왕상이 운석을 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구원들은 아리안 주의의 기원을 찾기 위한 탐사활동에 나섰던 SS탐사대가 독일로 가져온 이 사천왕상이 24cm 높이의 작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10.6kg에 달한다고 학술지를 통해 밝혔다.

연구원들은 "북방을 수호하는 다문천왕을 묘사한 조각상의 재질 분석 결과 철과

니켈이 많이 들어 있는 아타사이트 운석 조각을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대학의 엘마 부흐너는 "이 조각이 1만5000년 전쯤 몽골과 시베리아 접경지대에 떨어진 철질 운석의 파편을 쪼아 만든 것"이라며 "이 운석 파편들을 금광 탐사자들이 1913년에 처음으로 공식 발견했지만 전에 오렌 세월에 걸쳐 이 운석의 파편들이 수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각상의 연대는 정확한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조각 양식이 티베트의 11세기 본 문화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의 지원 아래 동물학자이자 인종학자인 에른스트 셰퍼를 대상으로 전원 SS대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탐사대가 이 조각상을 획득한 경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나치의 어금썬 십자가 모양으로 불교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만자(卍)가 다문천왕의 가슴에 새겨진 것이 탐사대의 관심을 끌었을 것으로 보인다.

부흐너는 "철인"으로 이름 지어진 이 조각이 운석에 새겨진 인간의 형상으로는 알려진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각상은 현재 독일 민간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연구용으로만 공개되고 있다.

이나는 기자



나치 독일 친위대 탐사대가 1938년 티베트에서 손에 넣은 사천왕상. 운석에 조각한 것으로 24cm 높이의 작은 크기이지만 무게가 10.6kg에 달한다.

우리가 모르고 쓰는 **생활속 불교용어**

아하, 이것도 불교용어?

식당, 진공, 현관, 망상, 천당 등 일상화된 불교용어들의 유래와 현대적 쓰임새를 삽화와 함께 재미있게 서술.

### 해탈장엄론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김병배 저  
진우기 역  
신국판 양장/628쪽  
28,000원

### 불교공부사전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곽철환 편저  
국판 양장/404쪽  
20,000원

### 선과 뇌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아리타 히데호  
켄유 소규 공저  
이성동 옮김  
국판/252쪽  
13,800원

선물용  
법공양용으로  
절찬리 판매중

김병배 역  
김병배 역  
김병배 역  
국판변형/256쪽  
10,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옴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